

〈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실상

구분	교육과학기술부 주장	실 상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주장
실효성 여부	입시전형자료로 제출 가능	실제 독서 및 자기 기록 여부를 판단할 근거 부족으로 인정을 꺼림. 부모나 대행업체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음. 학원의 해제지를 구입해서 입력하는 경우도 있음.	입학사정관 심사 시 자료로 인정 안 함. 대리입력을 막을 방법이 없음.
	독서교육 지원 효과	독후활동 전반이 독서력 개발보다는 독서 여부 확인에만 치우쳐 있음.	접속 수치는 독서력 향상과 직접적 연관 입증 못 함.
편의성 여부	입력의 편리	실시간 기록이 남고 독후감쓰기에 가져다 붙이기 기능이 금지되어, 수기로 쓴 후 정리해서 다시 옮겨 써야 하는 불편.	접속 불량, 저장 오류 등으로 대기 및 입력시간 낭비.
	교사의 편리	단순 확인 차원이며, 교사가 읽지 않은 책은 언급하기 힘들. 지원시스템에서 독서관리를 해주므로 교사가 독서교육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음.	일괄 채점식 지도 우려.
	통합적 관리로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	독서이력이나 독후활동자료를 비교분석하여 학생들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학생 평가 자료로 오용될 가능성. 독서는 개인의 지적 소유가 아닌 분석평가의 틀이 될 뿐.
	자료 분실의 우려가 없음.		서버 유실 우려 있음.
교육성 여부	교사의 독서지도 관리 받을 수 있음.	교사 대상의 체계적인 독서교육이나 연수 미비.	확인에 그치는 형식적인 지도 막을 수 없음.
	다양한 주제 독서 가능	시스템 목록에 없는 책을 입력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치므로 꺼려함.	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며, 입시와 연계된 한정된 도서 목록(학교 및 대학추천도서목록)에 가둠. 어린이 독서에서 매우 중요한 반복 읽기는 점수로 환산되지 않음.
	다양한 종합서술형 독후활동으로 자율성 고취	독서퀴즈, 개요쓰기 등 시스템이 인정하는 독서활동에 맞춘 독서 유도.	독서의 흥미 저하. 주어진 문제 영역 안에서만 사고하며 창의력 제한.
		단편 사실 기억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의 독서퀴즈 풀이. 유사 결과물 남발.	단순 이해 위한 독서, 독서력 저하 유도. 독서활동기록에 학부모, 사교육 개입 유도.
	온라인 토론 활성화	말장난 식의 댓글 남발.	토론 능력 향상 효과 기대하기 어려움.
	체계적 독서 관리	개인 독서 이력의 누적 관리 및 평가대상화.	일본의 어린이도서관은 부모가 요구하더라도 자녀가 읽은 책 목록을 학부모로 공개하지 않음.
	독서교육의 일상화로 독서습관 기쁨.	대입자료로 쓰일 독서이력 남기기와 요점 정리를 위한 형식적인 책 훑어보기 유도.	스스로 즐기는 책읽기 습관 위축. 잘못된 독서습관 고착.
	확실한 독서 동기 부여	입시 사정 위한 수동적이고 강압적인 적용.	비자발적 독서 경험 누적. 자생적인 독서클럽 등 자발적 독서 활동 동기 약화 가능성.
	평등교육	입시 동기 미약한 저학년은 부모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므로 맞벌이인 경우 사설학원 관리에 의존, 조부모 가정, 다문화가정에서는 시도조차 하기가 어려운 불평등한 시스템.	부모와 사설학원의 개입 유발. 불평등교육.
인권 여부	자료 유출의 위험이 없음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독서이력, 독후활동 내용까지 유출 가능.	실제 DLS시스템 신상정보 유출 사건 발생.
	개인별 독서 목록 축적 관리		개인의 정신사가 검열 대상이 될 수 있음.